佛教新聞

千年의 香음 듣는다

분기 2557년 3월 16일 (2013년 / 단기 4346년 8월 2월(6년)

1 bulgyo.com

1960년 1월 1일 창간 주2회 발행 대표전화 (02)730-4488 제2896호

사부대중 의식개혁 본격 추진

결사추진본부 자문위 5차 회의서 기조 추인 '중도의 눈으로 본 본래 부처와 동체대비론'

좋다이 세시 경사 와서운 의하 이 식개학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된다 조계주 지성마세시경사은지보보 자 문의원회는 지난 11일 문격 불안사 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사부대중

의식개혁' 기조를 확정하고 추진하 기근 검이하다 의식개혁을 위한 신(新)대승봉교 의 불교관과 심천본은 '중도의 눈으 근 보 보게(사라)보험이 두꿰대비 본 은 기조로 하다. 불교를 파단하 는 핵심 적도는 중도며, 지금 여기서 누구나 이해하고 심현하고 증명되 C로 HIPIU 행은 시청하는 불고가 돼야 하다는데 외견을 같이 했다. 외 식개혁의 기조가 추인됨에 따라 경 사추진본부는 원로의원 고우스님들 중심으로 현대적인 감각을 갖춘 불 고하지든과 하세 고재를 마듬어 주

이와 함께 자문위는 지속가능한 쇄신 결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총무원장 선거를 앞둔 시점에 서 쇄신 결사가 차기 집행부에서도 계속 이어장 소 이는 바람으로 나가 야 하다는 걸었다. 이를 위해 축무원 장 스님이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해

도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계획

총립번 종회산정 부름 유청

이나 자꾸의는 좀다 하아 무재에 대해서도 의견을 의견했다. 과사이 집중되고 있는 홈링법 개정안에 대 해 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며 당장 1월 주하여 상징하는 것은 유지 않 다는 입장이다. 총림의 진정한 의미 며, 선원 수좌와 해당 총림 등의 의 견을 수렴하는 한편 더 같은 논의와 연구를 통해 진정한 총립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 FIT 918 DOFT ORBIG SPRIN 노이가 준단된 '종교편화선어' 음 계 손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관련기사 3PI

총무위장 자승스님은 인사ID에서 "자무의원하는 주다이 센시 검사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지난 4차 회의까지 자문한 내용은 심여가능한 선에서 중여중면을 개 전하고 시하하는데 노력하 마른 5만 회의에서도 중단 쇄신을 위한 자문 을 해주면 회선을 다해 시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자문의 회의에는 원루의원

고우스님, 봉암사 수좌 적명스님, 석종사 선원장 해국스님, 기본선원 장 지하스니 고시의원자 지아스니 해인사 육주 종진스님, 계단위원 성 우스님 등 선교율을 대표하는 원로 스니듬과 고구보사조지원이의 의장 성문스님(동화사 주지) 등이 참석

중단 집행부에서는 총무원장 자승 스님, 호계원장 일면스님, 중앙종회 부의장 범이스님, 교육원장 하용스 나 표구원자 지원스타 경사용지보 부장 도법스님, 결사추진본부 총괄 부장 종혼스님, 불교신문 주간 임경 스님 등이 동화하다

문격=김하여 기자 5



지난 11일 문경 봉암사에서 열린 결사추진본부 자문위원회 5차 회의에서 총무원장 자승스님(가운데)이 인사말

다르다는 이유로 '차볔금지' 법 발의

고회 법사위 회부 예정

선명·한편·정치적 인장 등에 따른 모든 생활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법에는 정부가 5년 단위로 차별시정 기보계회은 소란하도록 해 하병은 예방하고 차별이 발생하는 경우 궁 가인권위원회가 시정권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경우 3000만원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법원의 관결로 선 해비사(악의적인 경우 소해액의 5배

까지 배상)은 공도통 항으로써 차별

로 위하 회해를 적극적으로 구제하

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 다. 김하김-회원시 민주통합당 의원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이 받의한 변안은 현재 과런 위원형에서 심시 중이다. 이 법안은 조계종이 줄곧 주 장세 오 주아버지바지바이 되지야 맥음 같이 하고 있어 주목되다 이미 차별금지법은 지난 2007년에 입인 된 범이지만 육지부지된 바 있다

환병급치병은 형병이 포투이네에 따라 장애, 나이, 출신국가, 민족, 언 어, 종교, 사상, 성적지향 등을 이유 로 한 20여개 역열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기본법

유다연 기자 tox

註 告 불교신문 법보시캠페인

어려운 이우과 포고하장에 불교신문을 보냅시다 [1구용 5,000위]

포교의 소리이 닿지 못하는 어려운 이웃과 포교현장에 부처 님의 가르침을 담은 '불교신문 법보시 운동' 을 시작합니다 비통 한 장의 신문이지만 포교사 한분 이상의 역할을 하고

포교환경이 영약한 교도소 군부대, 병원 등 포교사의 소리 이 필요한 현장에서 불자님들의 자비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시공덕 중 으뜸은 법보시이며 자기 자신과 후대를 위한 선 언음 쌓는 일인니다

'복고시문 워터지 중문' 화에는 나 이에 다른 서랍에게 보원 님 법을 만날 수 있는 즐거움을 주는 일입니다. 나눔의 기쁨에

대하봉고조계족 봉고시무사

독자기획사업부 (02) 730-4488 문자전용 (010-4157-4406)

가장 불교적인 박람회 '호평'

2013 불교박람회 성황리에 회향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란하는 '2013 불교박람회' 가 성확리에 마무리됐다. 불교산업의 활성화 와 불교문하의 대중하를 하두로 1700년 개 다체가 이기도하였다. 지난 3월7일부터 10일까지 연인 원 6만여 명이 다니갔다. 조계종 총무위장 자승스님을 비투한 주 이 이사들도 내내를 되었을 이제

지 않았다. 반환회에 선보이 조 배우들은 우수한 기술력과 예술 성으로 화관계등이 누건은 길이 다 풍부하 등량뿐만 아니라 집 적인 측면에서도 박수를 받았다. 단순히 물건팔기에 매달리는 성 연조에에 생활을 지오고 그 자 리듬 불교만의 가르워과 하기로 채웠다. 결국 가장 성대하면서도 가장 불교적인 박람회였다는 신 레를 남겼다. 종단 차워으로 함

THE DELT REPORTS STATE INC.

불교박람회의 흥행은 이미 예 고대 있었다. 불교계 최고의 언 본사와 출판사가 손을 맞잡고 추 지하 에서다 유보증과를 극대에 수 있다는 점에서, 업체들의 문 이야 중요이 이때라다 또하 경 제단의 고통은 불규계 시장도 예 외가 아니었다. 그만큼 불교를 대중에게 널리 알리고, 관로를 좋아야 하다는 이지가 제바라 사

박람회를 주최한 불교신문사 사장 성직스님은 "불교박람회 는 우리의 옛 전통을 계승하며 서도 복고경제화도용 인이키는 아주 중요한 행사"라며 "불교산 언 진호과 경제발전을 위해 약 - 영단 원동란"이라고 각조했다. 으로도 회선을 다 할 것"이라고 01818813

물론 시장을 살리겠다고 반관 의용 세소점이 '도레기시장' 이 로 꾸밀 순 없는 노릇이었다. 상 성이 훼손되지 않을까를 먼저 고 미양다는 계 조위 속이 성명이 다 건강식품 판매 등 불교와 무 과하 단순 상업부스의 인정을 가

문화와 예술 - 산업 총망라 불교정신 고스란히 보여줘 불교산업 진흥 가능성 확인

급위 제하하 게이 드디리지는 본 징이다. 상혼(向魂)의 거품을 건 어내는 대신 불교의 본질을 전면 of challent

무엇보다 특별전시관 운영에 곳을 들였다. 굿이문하사품으로 떠오른 템플스테이와 사활음식 '병원' 이 서도조차이 불고축되던 너, 불규정하운동의 주역인 청단 덕스님의 유혼을 기리는 '우리스 니 oloby!' 등이 HI그와 예다 구 동주회자인 불관출판사 대표 지 교의 문화와 예술, 사업을 총막라 해 불규의 정신을 고스라히 보여 취다'며 "이전이 더욱 푸성하고

것이 있는 방란함로 거듭날 수 있

불교문화적 요소를 극대화한 MISS AFRONESION C TESS 이었다. 불교 교리를 창조적으로 지원에서와 시지 자가들이 여도의 이 작품이 돋보였다. 무명의 젊은 화가들에게 이름을 알릴 전시공 간을 마련해 준 것도 귀감이 되고 이다 대다스이 시리되는이 청소이 로 끊은 불교박람회의 의의는 바

로 '모든 불거리에 불교가 숨 쉬 고 있다'는 호평이었다 기영수 불교반관히 집행위원 장은 "불교문화와 산업의 정수가 되도록 불규바라이의 정체성은 IOSSERIA HID OFF HURBING 행시"이라며 "뜬별전시라 운영과 붓다아트페어, 불교정신강화프로 그램, 체험공유프로그램 등으로

불교의 근본원리와 정신은 전달

5571 Q148 814971" TI UF9873

요컨대 불교박람회는 세상과 함께 호흡하는 불교를 대중에게 인식시켰다 전통이나 과념을 넘 어, '생활' 이자 '실용' 으로서의 불교로 성공 다가셨다. 불교문화 및 산업 부문의 심질적인 교류를 보레 시작은 넘힌 스 이는 계기 를 마련했다 동시에 향후 수의 사업 개발 및 광고시장 개척을 위한 발판을 놓았다. 총무원장 양하고 불교의 자비정신을 드늘 단이 함께함 수 있도록 준비하게 다"고 양송했다. 내녀에 더운 양

장영섭 기자 webs



불교신문과 불관출판시 가 지난 3월7일부터 10 일까지 서울무멱전시컨 베셔센터(SETET)에서 회는 연인원 6만여 명 이 다녀가는 등 불교신 업 진홍의 원동력을 확 이하 가장 불규정이 병 런한 가장 발표적인 목 람회라는 평가를 받았 다. 신재호 기자

군북교문회사언다 공동기회 '사착은신기회



불교신문사 사장 성격 한장

